

세계적인 식품사로 발돋움하는 - 롯데제과(주)

KPRC News는 이번 호부터 우리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사탐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코너를 통하여 기업이념, 환경보호활동 및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회원사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롯데제과 본사 전경

롯데의 모기업인 롯데제과주식회사(대표 : 한수길)는 1967년 설립한 이래 고객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앞선 유통방식으로 제과업계의 정상을 지키며 미래 식품기술개발로 국내 식품산업의 선진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와 양산, 평택, 시흥, 대전에 첨단 시설을 완비한 대단위 공장을 갖추고 껌, 초콜릿, 비스킷 등 2백여 종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제과업계 최초로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롯데제과의 우수한 제품들은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윤리수준이 높은 기업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로서, 윤리 수준과 이익 수준이 함께 높은 기업이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이의 생각이다.

이에 롯데제과(주)는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을 실현하고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롯데제과(주)는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을 상시 BOD 10ppm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공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오니를 비료화하여 자원낭비 및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생산설비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1995년부터 LNG로 교체하여 대기오염 방지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환경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았으며, 특히 2000년 6월 9일에는 환경관리 우수업체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영등포구 관내 학교, 지역주민, 경로당 및 단체의 환경교육장으로

상시개방 운영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약 3,500명이 견학을 하였다.

롯데제과(주)는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먼저 공장인근의 주민 입장에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경로잔치 등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과 지역주민의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및 정화작업을 한강변 및 도심에서 실시하였다.



롯데제과 직원들이 한강변에서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도로변 담장에 시골풍경의 그림을 그리고 공장건물 외벽도색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 금요일 오전에 직원들이 주변지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롯데제과(주)가 소비자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는 윤리경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회사명의 유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25세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샤롯데는 빼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재덕을 겸비한 청순한 매력을 지닌 여주인공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함' 어떤 주체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취지에서 모든 제품이 이 여주인공처럼 소비자로부터 영원히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기업, 친숙한 제품 제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롯데'라는 이름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먼저 고려하는 기업관으로 인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롯데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롯데제과(주)와 같은 환경친화기업을 우리사회에서 항상 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협회 홍보조사팀〉

롯데 CI 소개

수직의 세 기둥은 죽순처럼 돋아나며 힘차게 약진하는 기업의 힘을, 가로와 물결표시는 대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개척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3개의 'L'은 Life-Love-Liberty를 상징한다.

LOVE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회

롯데는 사랑이 넘치는 내일을 꿈꾸며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복된 사회의 건설, 이는 롯데가 이루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이다.

LIBERTY

모두가 자유롭게 제 할일을 하는 사회

롯데는 자유가 발전의 바탕임을 알고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있다.

자유롭게 일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밝은 사회, 또 하나의 롯데의 소망이다.

LIFE

다같이 풍요를 누리며 즐겁게 사는 사회

롯데는 밝은 내일을 가꾸기 위해 늘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롯데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